

노랫말에 나타난 한국인의 음풍경 인식 조사 연구

Study on Korean's recognition of soundscape reflected on the songs

신 훈* · 국 찬** · 장길수***

Hoon Shin, Chan Kook, Gil-Soo Jang

Key Words : Soundscae(음풍경), Songs(노랫말), Recognition(인식), Classification(분류), Meaning(의미)

ABSTRACT

It is requir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ound and cultural background of target spaces for soundscape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general soundscape preserved in the mind of Korean people. Four kinds of traditional Korean songs, that is to say, Sijo (Korean verse), folk-song, Pansori (song for drama by Chang reciter), and popular songs, were used as tools of research subjects. That is because the sounds expressed in literature are very useful subjects for soundscape survey. Paragraphs containing description of sounds were selected from the lyrics of the songs. Then 11 sound categories were named, and 13 meaning categor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referential and emotional aspects, respectively.

1. 서론

“어떤 종류의 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 공간에 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soundscape design의 궁극적 과제에 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장소 이용자 또는 지역 거주자의 심상에 남아 있는 소리에 대한 인상과 관념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

문학 작품 속에는 특정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주변의 소리관이 무의식속에 용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Murray Schafer는 공동체의 soundscape(음풍경) 전체를 외부로부터 감싸는 공명상자로서 인식하고, 과거의 음풍경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편으로 문학작품과 인류학 및 역사책을 들고 있다.[2]

따라서 문학작품속의 소리 표현의 의미를 조사하고 그룹핑(cataloging)하는 것은 음풍경 디자인의 매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岩宮 眞一郎(Iwamiya)는 일본의 전통적인 시 俳句(Haiku)¹⁾로부터 일본인의 음풍경관을

조사한 바 있다. 俳句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얻어진 소리환경인 계절, 장소, 시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표현들이 표현되어 나타난다. [3]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랫말에 나타난 음풍경 사고 추출하여 한국인의 심상(내면)에 남아있는 소리의 의미 파악하고자 한다.

노래는 인간의 감정이입(회노애락)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문화매체이며, 한국인의 오래 삶의 일부로서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문화의 창이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의 산물이며 사회상의 반영인 노래의 가사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인이 갖고 있는 소리인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소리의 유형과 의미 분류

조사는 시조^a 1100수, 민요^b 571, 판소리^c 5마당, 한국가곡^d 231곡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래의 가사 가운데 소리를 표현한 詩句를 추출하고, 가사의 전후 맥락을 통해 그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였다.[4][5][6][7]

Table 1 Survey target

노랫말	시조	민요	판소리	한국가곡
대상수	1100수	571	5마당	231곡

1) 5·7·5의 3구로 된 정형시로, 계절을 포함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는 일본 독자적인 短詩形文藝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석사과정
E-mail : hoon7708@hotmail.com
Tel : (061)330-3123, Fax : (061)330-3103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동신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부교수

이때 1곡 또는 동일 문단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소리는 1개 어구만 선정하였고, 인간의 소리인 웃음소리, 울음소리, 노래 등과 의성어로 표현된 소리는 음풍경 디자인 활용성의 측면에서 배제하였다.

2.1 소리의 유형분류

4개의 음악장르의 가사 속에서 소리를 표현하는 문구를 찾아 낸 결과, 430개의 문구(시조 126, 민요 139, 판소리 87, 가곡 78)를 추출하였다. 이중 민요가 전체의 33%를 차지해서 가장 많이 추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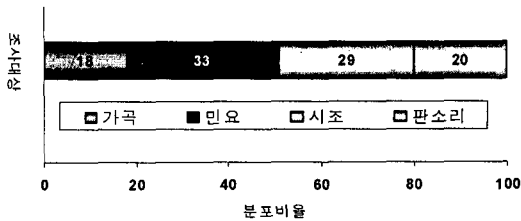


Fig. 1 Songs's distribution ratio

이들에 쓰여진 소리와 그 소리가 들려진 상황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 소리, 시간의 카테고리에 의해 분류한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sound according to referential aspects

sound	number	definition of sounds
기후	18	빗소리, 바람소리, 천둥소리, 번개 치는 소리, 나뭇잎소리
동물	52	개 짖는 소리, 말 우는 소리, 원숭이 우는 소리, 호랑이 우는 소리, 소우는 소리
물	30	개울가 흐르는 소리, 파도치는 소리, 시냇물, 떨어지는 폭포
곤충	15	벌레, 귀뚜라미, 매미, 개구리, 나비 날개 짓 소리
새	154	기러기, 삵소리, 꿩소리, 나이팅게일, 종다리, 까마귀, 울새, 까치, 갈매기, 앵무새, 제비, 닭 우는 소리
생활도구	33	베를 짜는 소리, 물레 도는 소리, 툇질 켜는 소리, 배 짚는 소리, 멧돌 가는 소리, 다듬이질 소리, 가위질 소리, 방아 짚는 소리
악기소리	86	북, 거문고, 피리, 종, 툇소, 가야금, 방울, 장고, 비파, 해금
절	19	북, 종, 풍경, 목탁 치는 소리, 염불 외는 소리
이미지	14	잎 지는 소리, 대 깨는 소리, 칼이 우는 소리
인간행위	7	발자국 소리, 휘파람 소리, 박수치는 소리, 풍어가 부르는 소리
전쟁	2	총소리, 대포소리

예를 들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라는 詩句의 경우 자연음인 새소리는 ‘노고지리(종달새)’이고, 시간은 ‘동창이 밝았느냐’의 아침으로 분류된다. 분석 대상이 된 詩句는 모두가 이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였다.

이를 토대로 11개의 소리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sound according to meaning by M. Schafer

sound	category	number	definition of sounds
자연음	물의 음	30	물, 비, 바다
	대기의 음	19	바람, 천둥
	불의 음	6	화산, 등불
	새의 음	154	까마귀, 꿩소리,
	동물의 음	52	말, 개, 고양이
	벌레소리	15	귀뚜라미, 매미
인공음	해양생물음	3	물고기
	기계음	21	기계, 배, 총, 대포
	사회음	112	인간활동, 노래
	신호음	18	시계, 종, 벨, 경보

Table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래의 가사 속에 주로 사용된 소리의 유형은 새, 악기, 동물, 생활도구, 물소리의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3은 자연음 가운데에서는 새소리, 동물소리, 물소리의 순서였고 인공음 가운데에서는 사회음, 기계음, 신호음 순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8]

Table 4 Categories of 3 times

time	sounds	number	definition of sounds
아침	새	26	닭 깃소리, 꿩소리 우는 소리
	인간행위	5	방울소리, 물 지는 소리
	동물	9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우는소리
낮	새	4	낮닭의 울음소리,
	악기소리	5	정과 북소리 울리고, 쇠북소리, 장구소리
	인간행위	15	농가를 부르며, 모심는 소리
	곤충	3	매미소리
저녁	새소리	49	절동새 우는 소리, 삵소리
	동물	5	개 짖는 소리,
	인간행위	4	발자국 소리, 땀 드는 소리
	절	8	종소리, 염불소리, 목탁소리
	생활도구	6	베를 짜는 소리, 물레 도는 소리, 다듬이질 소리
	악기소리	24	인경소리, 가야금, 대금, 거문고
	곤충	11	귀뚜라미, 개구리 우는 소리
	기후	3	천둥소리에 잠이 깨고
	이미지	3	추풍에 잎 지는 소리, 칼이 우는 소리
	물	6	맑은 물소리, 빗소리

자연을 중에는 새소리가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 두견새, 기러기, 피피리, 삵소리 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악기소리는 북, 피리, 거문고, 종, 가야금 소리의 순서로 많았다.

시간에 의한 분류는 전체 詩句 가운데에서 절반가량이 가능해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4와 같았다.

Table 4에서 특징적인 것은 ‘새소리’와 같이 각 시간에 골고루 출현하는 카테고리도 있는가하면, ‘절(의 소리)’처럼 한 시간에 집중해서 출현하는 카테고리도 있다는 점이다. ‘새소리’는 아침과 저녁에 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리라 할 수 있다. ‘새소리’는 선행과제에서 조사한 ‘주관적 소리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에 있어서도 생활주변에서 인상 깊었던 소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적율을 보였다. 그 외, 시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리는 ‘악기소리’, ‘곤충소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들어서기 이전 시대에는 일상의 환경은 소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시간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야간경관의 경우 소리가 환경의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sound according to meaning

No.	meaning of sound	number	definition of sounds
1	그리움 yearning	75 (17.4%)	새 30, 물 12, 악기 9, 기후 6, 낙엽), 생활도구 5, 곤충 4, 동물 3, 사찰 3
2	평화 peace	73 (17.0%)	새 33, 악기 20, 동물 7, 사찰 3, 기후 2, 곤충 2, 이미지 1, 인간행위 1
3	외로움 loneliness	55 (12.8%)	새 37, 동물 4, 곤충 4, 사찰 4, 악기 4, 물 2
4	시간 time	33 (7.7%)	동물 17, 새 7, 악기 7, 사찰 4
5	큰소리 loudness	31 (7.2%)	악기 8, 동물 6, 기후 5, 물 2, 생활도구 1, 전쟁 2, 기타
6	풍요 abundance	30 (7.0%)	악기 23, 새 3, 동물 2, 사찰 1, 생활도구 1
7	반가움 delight	28 (6.5%)	새 11, 악기 7, 기후 2, 인간행위 5, 동물 1, 물 1, 생활도구 1
8	애절함 mental anguish	28 (6.5%)	새 12, 악기 4, 동물 2, 생활도구 2, 기후 2, 인간행위 2, 물 2, 곤충 2
9	고요함 silence	26 (6.1%)	새 13, 물 7, 악기 2, 사찰 2, 기후 1, 동물 1
10	노동 labor	25 (5.8%)	생활도구 25
11	사랑스러움 love	10 (2.3%)	새 7, 악기 1, 사찰 1, 곤충 1
12	경고 warning	8 (1.9%)	동물 7, 인간행위 1
13	죽음 death	4 (0.9%)	새 1, 인간행위 2, 악기 1

환언하면 이들의 소리가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2 소리의 의미분류

詩句 속에 표현된 소리의 의미표현에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 보았다.

예를 들면,

“공산이 전막한데 슬피우는 저 두견아
 축국홍망이 어제 오늘 아니거늘
 지금히 피나게 울어 남의 애를 끊나니”

라는 詩句의 경우 ‘슬피우는 두견아’와 ‘피나게 울어’의 의미표현은 애절함이라고 분류하였다. 이렇게 노래 가사에 사용된 각종 소리의 내포된 의미를 파악한 결과 모두 1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는 소리의미의 유형별 구체적인 소리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Fig.2는 소리 의미의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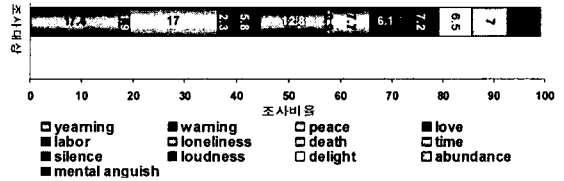


Fig. 2 Ratio of meaning type

Fig.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리움(yearning), 외로움(loneliness), 애절함(mental anguish)을 포함하는 ‘슬픔(sorrow)’의 의미가 약 41%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전통음악의 주된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평화(peace), 반가움(delight), 사랑(love)등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평화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새소리, 악기소리가 주된 소리(sound source)로서 이용되었으며, 닭과 같은 동물의 소리도 자주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주된 소리로서 북, 장고, 징, 거문고 등의 악기음이 이용되었다. 이것은 유희 현장이나 노동의 현장에서 풍물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상징하는 소리로서 닭, 종달새, 종소리 등이 이용하여 새벽을 의미하거나 특히 관에서 울리는 ‘인경소리’는 특정 시간을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가움을 나타내는 소리는 한국의 민가에서 길조(吉鳥)로 여겨지는 까치와 같은 새소리와 악기소리가 있으며 여기에 인간의 발소리도 자주 이용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큰소리로서 인식하였던 소리는 북소리와 같은 악기음과 개, 호랑이와 같은 동물 그리고 번개, 천둥과 같은 기후 등이다.

고요함을 표현하는 소리로서는 정원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인 물소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새소리,

별레 소리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을 나타내는 소리는 베를, 톱질, 방아 쪼기, 가위질 소리 등으로서 각종 노동요의 한 부분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소리는 주로 새소리인가 이용됨을 알 수 있다. 경계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던 소리는 개 짖는 소리가 주로 이용되었으며 큰 소리로서 인식되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의 주된 기조를 이루고 있는 슬픔(sorrow)을 표현하기 위한 詩句를 분류하면 Fig.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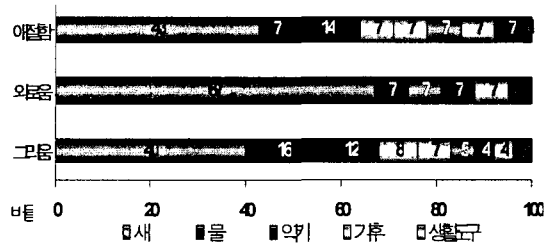


Fig. 3 Sounds that express human's sorrow

Fig. 3에서 슬픔을 의미하는 그리움, 외로움, 애절함의 표현에는 주로 새소리가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슬픔을 표현한 새소리는 두견새와 기러기가 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새소리는 피꾸리, 반가움을 표현하는 새소리는 까치 그리고 평화를 표현하는 새소리는 뻬꾸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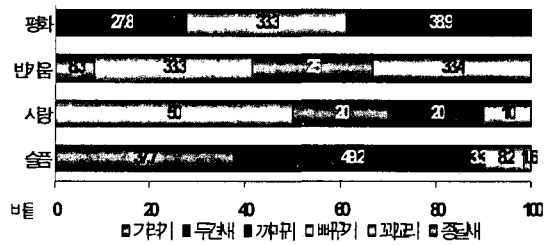


Fig. 4 Meaning classification by the kinds of birds

그 가운데 전통 음악의 주된 기조를 이루는 슬픔을 표현한 두견새와 기러기의 소리가 가장 한국인의 정서(감정)를 잘 나타내는 소리로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소리를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소리의 의도와 정보가 있다. 하지만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어떤 음은 생활을 위협하는 소음으로 어떤 음은 쾌적한 음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즉 동일한 음이라 하더

라도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개개인의 감성적 능력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기능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생활주변의 다양한 소리에 대해 한국인이 부여해 왔던 의미를 고찰해 보았으나 조사대상의 문헌이 한정되어 있어 추후에 보다 방대한 자료에 의해 더욱 다양한 소리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음풍경 디자인의 단서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Murray Schafer, 1977, The Soundscape (Vermont: Destiny Books), pp.3-4
- (2) Murray Schafer, 1977, The Soundscape, (Vermont: Destiny books), p.8/p.137
- (3) Shin-ichiro Iwamiya, Koozoo Madea, 1993, The Japanese Soundscape Represented in the world of HAIKU, International Symposium '93 on Design of Amenity, pp. 413-420
- (4) 심재원, 1993, "고시조 천수선", 형설출판사
- (5) 김태갑, 조성원, 1996, "민요집성", 한국출판사
- (6) 김봉호, 1994, "판소리 창본집", 백문사
- (7) 한국악보연구회, 1983, 한국의 애창가곡 231, 태림출판사
- (8) Murray Schafer, 1977, The Soundscape (Vermont: Destiny Books), pp.139-144

a 시조 : 판소리와 더불어 문학과 음악적 성격을 함께 지닌 한국민족이 보유한 독특한 예술 장르를 말한다. 정악(正樂) 또는 정가(正歌)의 일종으로서 전통적으로 계층구분 없이 즐겼던 노래이다.

b 민요 : 민중들 사이에서 불리 우는 전통적인 노래이다. 특정한 창작자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민중의 생활감정을 소박하게 반영한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이고 민족의 정서가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평가된다.

c 판소리 : 민속학의 한 갈래로서, 소리를 하는 사람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창, 노래)와 아리(말)로 엮어 몸짓을 곁들이며 구연하는 민속예술이다. 전통적이고 광대라고 불리 우는 하층계급의 예능인에 가창되었고 전승되어 왔다. 조선 숙종말년에서 영조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12마당이 전해져 내려왔으나 지금은 여섯 마당이 전해지고 있다.

d 가곡 : 시를 노랫말로 하여 곡을 붙인 음악의 한 갈래이다. 대중가요와 구별하여 흔히 예술가곡 또는 한국 가곡이라고도 부른다. 가곡은 대한제국 말기에 보급된 기독교와 찬송가 창가(唱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한국가곡의 시발점은 1919년의 흥남파가 작곡한 봉선화이다.